

출판문화의 절정 이론 세종 임금

‘갑인자’와 한글활자 개발... 임란 전까지 술한 책 찍어내

“15세기는 한국의 전 역사를 통해서 학문과 문화활동이 절정기에 도달했던 시기 중의 하나이다. 수많은 중요한 서적들이 간행되었다. 커다란 백과사전, 지리서, 유교경전 및 철학에 대한 주석서, 법전, 그리고 사서(史書)들이 나왔다. 이러한 학문상의 모든 활동에 수반해서 인쇄술 분야에서는 광범한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대부분의 인쇄는 활자로 이루어졌다. 활자는 중국에서 발명된 것이겠지만, 그러나 활자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광범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초 한국에서였다. 1403년에서 1484년에 이르는 동안에 조선 조정은 여덟 종류의 대규모의 활자인쇄 사업을 수행했던 것이다.”

이 글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동양사학자인 라이사위와 페어뱅크 교수 공저 《동양문화사》(을유문화사, 1964. 개정판은 1992)의 한국에 관한 부분의 한 대목이다. 글 속의 1403년은 태종 3년(계미년) 주자소를 설치해 조선조 최초의 동활자인 ‘계미자’ (지난호 참조)를 만들어낸 해이고, 1484년은 ‘갑진자’ 30여만개를 주조했던 성종 15년(갑진년)을 가리킨다. 근세 최초의 문예부흥기라 할 이 시기의 중심에 세종 임금(1419~1450 재위)이 자리잡고 있다.

세종대에 들어 처음 만든 활자는 1420년의 ‘경자자’다. 이 동활자는 ‘계미자’를 개량한 것으로, 뒤에 ‘갑인자(甲寅字)’가 새로 주조되기까지 14년간 사용되었다. 이 ‘경자자’로 찍은 책으로 그 실물이 현존하는 것은 20종 남짓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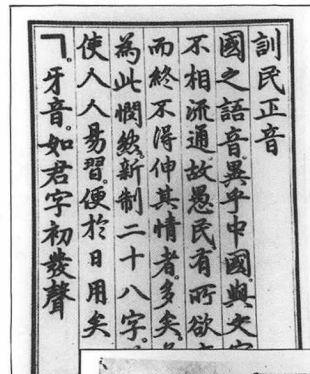
“활자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은 15세기 초 한국에서였다. 1403년에서 1484년 사이에 대규모의 활자인쇄 사업이 이루어져 백과사전·지리서·주석서 등 많은 책이 쏟아져 나왔다.”

1434년 세종이 두번째로 20여만개의 크고 작은 활자를 만들었으니 이것이 유명한 ‘갑인자’다. 이 활자는 그뒤 1777년(정조 1년)에 이르기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개조(改鑄) 되었으므로, 세종때 처음 만든 갑인자는 ‘초주(初鑄) 갑인자’라고 부른다.

조선 개국 초기부터 중앙정부에서 힘을 쏟은 활자의 주조 및 인쇄술은 ‘경자자’에서 크게 개량되었고, 그 14년 뒤에 다시 개발한 ‘갑인자’에 이르러 활자꼴이나 인쇄기법이 더욱 진일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금속 활자 인쇄술은 절정을 이루게 된다.

이 ‘갑인자’는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까지 약160년간 사용되면서 수많은 서적을 찍어냈다. 따라서 오늘날 ‘갑인자’ 인본(印本)으로 국내외에 남아 전하는 책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1443년 세종의 한글 창제는 우리 겨레에게 천지개벽에 버금가는 대혁명이었다. 앞서의 라이사위·페어뱅크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한글 창제의 취지와 원리를 해설한 《훈민정음》 해례본 (1446·목판본, 국보 제70호·간송미술관). 아래는 ‘초주 갑인자’와 한글활자를 섞어서 인쇄한 《석보상절》 (1447·보물 제523호·국립중앙박물관).

“이 시기의 가장 주목할 지적 업적은 한국말을 기록하기 위한 훌륭한 표음체계의 발명이었다. ...한글은 아마도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모든 문자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체계일 것이다.”

그들의 이런 평가는 우리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구미(歐美)의 학계에 널리 알리는 데 큰 몫을 했음은 물론이다. (이 항목 계속)

출판저널

통권 제212호 / 1997년 4월 20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환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박남정 마정미
 최성일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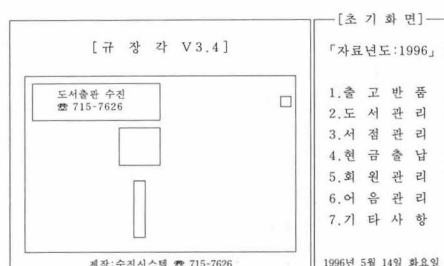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규정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택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출판사 관리프로그램 “규장각”



- 서점장부, 명세서, 도서관리
- 회원(DM), 현금, 어음관리
- 90년 개발후 120여 출판사에서 사용중
- 중소규모/단행본출판사에 적합
- 데모용 프로그램 무상

■ 프로그램가격: 33만원
■ 개발판매: 수전시스템 (715-7626)
 용산전자오피스텔 705호

독서계의 흐름과 출판계의 이모저모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합철본을 제작, 한층 자료 가치가 높아진 합본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출판저널 합본호 판매안내

- 합본1호 (날권1~10호) 5,000원(판매)
- 합본2호 (날권11~20호) 5,000원(판매)
- 합본3호 (날권21~30호) 5,000원(판매)
- 합본4호 (날권31~40호) 5,000원(판매)
- 합본5호 (날권41~50호) 5,000원(판매)
- 합본6호 (날권51~60호) 5,000원(판매)
- 합본7호 (날권61~70호) 5,000원(판매)
- 합본8호 (날권71~80호) 5,000원(판매)
- 합본9호 (날권81~90호) 5,000원(판매)
- 합본10호 (날권91~100호) 5,000원(판매)

* 구독에 불편하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전화·서신 등을 통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합본호 구입시 우송료는 수취인 부담이므로 본사를 직접 방문, 구입하시면 유리합니다.
* 전화: 732-1433, 팩스: 722-1174

출판저널

(컴퓨터, 프린터, 컴퓨터소모품 등 컴퓨터용품 특가공급)